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잠언4:1-9)

한국에 처음 랩송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노래가 무슨 곡이 있어야지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한 방송에서 자신의 대표적인 곡을 이야기했다. 자막에 가사가 나오더라. 읽어보았더니 내용이 자기하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기와 친한 여자와 사귀다. 잘못된 만남이다. 네가 이럴 수 있느냐는 것이지 너희끼리 친해서 말이되냐는 것이다. 그 가사를 읽어보니 말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랩으로 해야지 뽕짝으로 시처럼 설명했다면 될 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인도하는데 랩송 비슷한 내용을 불렀는데 괜찮더라. 리더가 문화가 다르니 이런것도 나오거나 노래 들어보니 괜찮더라. 은혜를 받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너를 높일 것이다.

성도가 사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이유는 없다. 우리는 사는 이유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한 개다 이복을 누리고 전하라,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운명같은 것이다. 피할 수 없고 가장 복된길이다.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는 일은 이것이고 가장축복된 길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 하나이기때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승리하고 축복을 받았다. 인생 작품을 만들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성공할까 질문이 많다. 하나님은 네가 무슨 질문이 필요하냐 내가 계속 답도 주고 방법도 주는데 계속 질문하면 나는 어찌란 말이냐가 하나님의 입장이다. 이런 인생이 되려면 근본조건이 바른복음이다. 우리는 진짜은혜로시대적인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 눈으로보면 이제 모든 것 다 주었다. 모든문제의 답이다. 복음이 원죄에 대한 답이 완전답이라는 것이다. 약속으로만 있는게 아니고 성경책에만 있는게아니다. 그게 우리의 삶속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도의 모든 저주를 깨는 권세이다. 이것을 계속 고백을 하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유는 말씀이 살아가기에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할 것이다.그런다고 되냐고 이런 부분에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생각하면 되는것이라고 어찌다 되겠지 확률은 50%이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사람이 창3장 문제를 당하고 사단에게 잡혔다는 것의 말씀이 잘 안믿어지는 것이다.그래서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것을 늘 이야기 한다.어릴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는 호랑이 굴에 가서 살았다.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게한 어머니가 보통이 아니다. 나중에 커서 민족적인 한으로 애굽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멀리 도망가서 사는데 어느날 하나님이 나타났다. 내 백성을 이끌고 3일길로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하셨다.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이다. 노예로 살다보니 정신이 없으니 데리고 나가서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이다. 모세는 이것을 기준으로 완전 역전된것인데 성경에는 이런 예가 수없이기록되어있고우리 주변에는 이런 증인들이 많다. 다시한번 언약이 되어 역전인생을 되기를 바란다.

1.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그가 나를 높인다고 하셨다 또하나 네가 나를 마음에 품으면 너를 높인다고 하셨다. 이것이필요없는 사람은없다. 6절에 지혜를 사랑하라 너를 높이라 다 알고있었지만 지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네가 인생의 보

호를 받고 싶으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라 네가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하나님의 보호과 필요 없는 사람은없고 누구든지 필요하다.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고 하셨고 네가 마음에 품으면 네 인생을 영화롭게 하신다

1절에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으라 아버지의 훈계는 지혜를 말한다. 지혜를 가진자에게 명철을 주신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도 골2:3 확실하게 말한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였다. 고전1:24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라고 말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고 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을 알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시며 명철을 얻게 되고 판단을 잘하고 속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바른 판단이 중요하다. 네가 그리스도를 언약을 잡으면 바른판단, 성령인도를 받을 것이다. 6절에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하셨다. 네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 7절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했다. 그리스도가 최고니 그리스도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누리면 나오는 것이 명철이다. 놀라운 영적인 잠언이다. 그리스도에 올인하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리스도를 누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명철을 주실것이라고 하셨다. 완전한 성령인도를 받는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문제를 당한다 때로는 무엇인지 모르고 혼미한 상태에 결정을 하는 있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을 해결하는 답을 주신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를 얻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바른 판단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다시한번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잠언은 속담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전체의 답이다.그리스도를 언약으로잡으면 네 인생에 명철을 얻을 것이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말씀을 듣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내안에 조금씩 각인이 된다. 자신을 봐도 사역을 해봐도 아는데 사람 잘 안바뀐다. 그만큼 우리가 창3장의뿌리가 깊다는 것이다. 대단히 차이나는 것도 아닌데 잘 안변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답을 이야기하는것이이 오늘도 다시한번 각인하는 시간이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런 주제를 여기 저기서 선택하는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읽어 나간다. 거기에는 성경전체의 근본 메시지가 숨어 있기에 그렇게한다.이런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경은 이것을이야기 하고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 다른 것을 말하는게 아니다 그냥 속담이아니고 영적인 속담이고 성경의 메시지이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절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 부족한 것도 아니다. 이미 완성된 것이다. 누리기만 하면 즉시로 움직이는 것이다. 약속의피로 일어서라. 그럼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피이다. 다시한번 확인하고 승리,정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언약으로 잡는 결심이 필요하다.그러면 역사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것을 위해서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묵상이다. 진짜인가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그냥 막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 지나갈 수있다 혼자서 딱 하나님 앞에서 멈춰선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답이 나는 것이다. 이 조그만 행위를 통해서 차츰 계속 바뀌어 간다. 한꺼번에 바꾸시지 않으니 속에서 고쳐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언약으로잡아야 할 분명한 것이 이런 시간이 지속이 되면 분명히 변화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감사한 것은 복음을 모를때는 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세월이 갈수록 자기 속에 창3장 체질이 올라와 오히려 뒤로 되돌아 가고 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않다. 반드시 말씀은 그 자리, 앞으로 나가지 되돌아가는 법은 없으니 감사하다.

2.부모

4절을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가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아버지란 단어는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자기 아버지 다윗이다. 제 생각에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자주 들던 말씀 너는 내 말하는 데로 살아 그러면 살 것이다 격려도 되고 힘도 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답을 전달한 것이다. 아들에게 이야기 했다 너 내 따라 해.. 너 내가 하는말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다 하나님을 너를 살릴것이니까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하였다. 솔로몬의 체험이다. 이 말씀은 다윗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이다. 답난것이다. 너 아버지 말 거역하면 안되 따라가, 너 명철을 얻을 거야 그 말을 통해서 지혜에 결과가 명철이다. 지혜를 가진자는 명철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너 아버지말 따라가면 너 똑똑한 인간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철을 누리게 될거다. 바보같은 선택을 해서 슬데 없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철이 있다고솔로몬이 고백한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손해볼것이 없다. 부모는 자식이 죽을 소리를 앓한다. 자기는 도둑놈이론 도둑질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안한다. 만일 하나님과 일치하고 그 같은 소리를 한다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각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내 부족한 것 내 영적문제를 아이들에게 전하면 이상해 지는 것이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귀한 부모였다. 아주답이 난 사람이다. 너 내 따라오라 그러면 너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4절에 내 말을 네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네가살 것이다. 확실하게 말씀에 대하여 답이 난 사람이다. 이 말을 솔로몬에게 할 때 하나님앞에 다윗의 고백이다. 자기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결과를 두고 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에게도 말할수있어야 한다 네가 누군지 모른다 네가 많일 내 따라오면 네 인생 역전을 시켜 주겠다. 조건은 딱 하나 뿐이야 내 따라 오라 다윗은 그정도의 답을 가진 사람이다. 자기 삶속에서 이 언약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런 말을 할 수있어야 하는 증인이다. 답을 딱 가지고 있다. 고전4:1절에 사람이 마땅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자로 여길 것이다. 쉽게 할 수없지만 사도바울은 교만이 아니고 감사와 확신으로 고백했다. 자신이 이런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현장에 나타난 많은 증거를 가지고 확인을 한 것이다. 처음에는 증거 일어난다고 기뻐하고 된다고 좋아 했겠지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하고도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런 고백을 한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필요없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이런 저런 일을 만나서 다른 사람보기에 이상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구든지 여기에 도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유는 계속 증거를 주실 것 이니까 되기 싫어도 이런 생각에 들어간다. 인생도 당연히 다윗 같이

바울같은 인생을 살 것이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많은 제자를 세웠다고 자주 듣는다. 그런데 사실은 세계의 문화를 뒤집어 버렸다. 가 많이 두었으면 로마의 제우스 문화가 전세계로 파고 들었을 것인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가 전세계를 살린 것이다. 지금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숫자가 줄어 든다고 한다. 이때 우리는 사도바울이 가졌던 똑같은 복음을 가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전세계의 귀신문화를 끊을것인가 어디에 내 인생을 드리면 가장 효과적으로 귀신문화를 꺾을 것인가 바울이 이야기 했다 로마도 봐야 하리라 여기야 지금, 가장 효과적으로 귀신문화 제우스 문화를 꺾을 수 있는곳이 로마야 가능하면 크게하고 효과적으로 해야지 작게 해야 할이유가 뭐 있냐 눈에 들어와야 한다. 어떻게 복음을 받았냐 그러면 되든지 안되든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도달해야 한다. 여기에 답 없으면 힘없고 무너진다. 성경에 있는 모든 시대적인 인물들은 이것 때문에 살아났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모세도 말씀을 못받았으면 양치기 하다 죽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왔다 하나님 말씀 주세라고 기도해야 한다. 사도바울이 이야기했다. 나는 너희가 이런 저런 소리 많이 해도 관계없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네가 무슨 사도냐 돈 때문에 그렇지,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 너희가 무슨소리 해도 필요없어 나는 하나님의 비밀에 생명을 걸었어 이시대는 이게 필요하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안다 복음이 정확할수록 귀신 역사가 심하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다 사도들이 매 맞고 핍박이 있었다. 사단의 역사가 항상 있었는데 그런데 속 아버지면 안된다. 속이기도 죽이기도 하는 다양한 방법이다. 이런 저런 방법으로 경제막고 비난하고 이상한 소문에다가... 그런 것 때문에 속아버리면 안된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네가 세상에 상관 있는자는 순례의 길을 갈 수없어 탈락이야 사도바울이 이야기 했다. 피맺힌 고백이라고 생각한다. 너희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선택을 받은 것처럼 다 이리 되어야 한다. 다 이리되어도 부족하다 미국, 남미, 브라질 갈곳이 많다. 12시간이나 걸리는 브르질 한국와 같은 거리 굉장히 큰 나라, 아르헨티나, 칠레로 가려면 12-3시간은 걸릴 것이다. 인구 다합하면 6억이다. 천만명 인구 작은 나라 복음화 하는데도 오래 걸린다. 싹다 일어서야 한다. 미국에 있는 교회 싹다 일어나도 모자라다 100-200년 걸릴수 있다. 우리도 바울같이 다윗같이 답을 내야 한다. 바울처럼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소용없다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100년의 응답과 더 큰 1000년의 응답이 인생작품으로 오는 것은 당연하다. 대단한 것이 아니다.하나님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원이 없다 이러면 우리 인생 로마 되고 237된다. 정복하고 승리한다.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가 밟아 버리고 뛰어넘고 승리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 명철해서 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자꾸 무슨 생각으로 흥미해져서 오만 때만 소리가 들려온다. 필요없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그리스도. 네가 만일 나를 높이면 너를 높이이라 네 마음에 나를 품으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와 통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한다.